현장시선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 운영 기본원리로 삼아야"

오 애 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기업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윤리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 문제와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과 각종 단체들의 노력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경제성장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다양한 영역과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조직운영 기본원리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의 관광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가 결혼마저 가로막으며, 1981년 통계작성 이래 혼인건수가 같은 달 기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5분의 1 이상 줄었으며, 내외국인의 여행자수는 지난해보다 8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항만물류 하역비 동결, 무분규 선언 등 각 영역별로 위기 극복에 힘을 합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The 좋은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안전보건, 경영 등의 큰 틀 아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 중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플라워 버킷챌린저'와 '1테이블-1화분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보유량에 도움을 주고자 LX는 6월 18일 세계헌혈의 날을 맞이해 공사 전기관이 함께 하는 헌혈운동에 참여했다. LX 제주지역본부는 매년 여름 지역주민 누구나 오며가며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LX 제주지역본부에서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등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 유일한 LX측량장비 검교정센터에서는 측량장비별 혼재돼있던 매뉴얼을 축적된 LX만의 측량장비 운영·점검 노하우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측량장비 통합 매뉴얼'을 LX홈페이지(www.lx.or.kr)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 매뉴얼 공개를 통해 국내 및 제주도 내 공간정보 관련업체와 측량업체 등 1000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LX는 상생과 협력, 포용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체질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구현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혁신단 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LX 제주지역본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결과 2018년 실적대비 9.7점 상승해 국토교통부 산하 준 정부기관 최고점을 득점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협력업체, 내부 구성원별 눈높이에 맞는 소통활동을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설

하나 마나한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업무능력과 도덕적 수준을 검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퇴짜를 맞은 인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거면 과연 인사청문회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결국 무용론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임명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김 시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 부동산 투기 의혹, 편법 증여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이 임명되면서 공직 내부는 물론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민을 무시하는 '원희룡표 인사'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 시장 임명 강행은 인사 폭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원지사의 인식이 도민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도 도민사회 여론과 공직 내부의 정서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없다고 대의기관의 의견을 깔아뭉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갈 거라면 인사청문회는 하나 마나한 것입니다. 차라리 임명제가 낫다는 얘깁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엉터리 의견서 낸 도의회, '이럴 수 있나'

제주도의회가 위헌여부를 묻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엉터리로 작성, 제출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여부를 묻는 중대사안에 의견수렴도 제대로 않았고, 거기다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벌인 겁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정활동이 치명적인 신뢰도 손상에다 전국적 망신살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회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지난 4월 요청해 옴에 따라 최근 3개 교섭단체와 7개 상임위원회별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도의회 운영위가 각 상임위별 소속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제출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 5명(모두 출마자격 제한 유지 의견)의 의견만 듣고, 나머지 4명(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안 한 채 의견을 냈습니다. 운영위는 교육위 제출 의견을 소속 전체 의원 의견으로 여겨 헌재에 '교육위원회는 모두 헌법소원 심판 청구취지에 반대한다'는 잘못된 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른 겁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엉터리 의견서' 제출 사실도 몰랐다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문제 제기 후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운영위 측이 "교육위와의 소통문제로 오류를 인정하고, 헌재 측에 수정된 의견서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는 궁색한 변명이지만 '원님행차 뒤 나팔부는' 격이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도의회는 교육위의 의견수렴 과정에 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지, 운영위가 교육위 제출의견을 왜 전체 의원 의견으로 오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충격적인 이번 사태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열린마당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오 지 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및 제주시청 차량관리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차고지 제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업 희망자가 급증해 제주시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 3.3배 많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만원이며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자기차고지 사업 수요 급증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마감 됐으며 동 173개소 및 읍·면 38개소에 설치돼 약 4억871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에도 사업 수요가 늘어나 상반기 기준 60%의 신청을 받았으며 예산도 조기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년 6월 11일 이후로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토록 개정 시행됐으며, 이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기차고지 사업의 수요가 증가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는 만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신청해 개인 차고지 조성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개발공사, 공익사업 활동에도 집중

창립 25주년 맞이 계획 마련

○…제주도개발공사가 올해 창립 25주년과 함께 최근 김정학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피력.

공사는 제주삼다수는 물론 감귤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민주거복지사업, 마을특화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은 물론 지역 공익사업 활동에도 관심을 집중.

신임 김 사장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삼다수 유통·판매 확대는 물론 감귤박 및 마을 용천수 활용사업, 주택사업 등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백금탁기자

취임 후 첫 방문은 보건소

○…안동우 제주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최일선인 제주보건소 방문으로 공식업무를 시작.

이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로, 몇 달째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내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도 점검.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시설이 외부에 설치돼 하절기 근무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보강 검토도 요청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노래연습장 특별 지도점검

○…서귀포시가 지역 내 노래연습장 8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

서귀포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및 수기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영업 전·후 시설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중점 살필 계획.

서귀포시는 지도점검에 나서며 고위험시설의 시설관리자·이용자 등에게 전자출입명부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 현영종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의이공 택훈(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7월 3일

부인 박경자
아들 이무록 며느리 진애리
딸 이성은 사위 정제교
주영 송성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방자(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7월 3일

아들 전병화 며느리 정미용
병천 고복신
병선 최내영
딸 전정희
은희 사위 김상철
영희 추연용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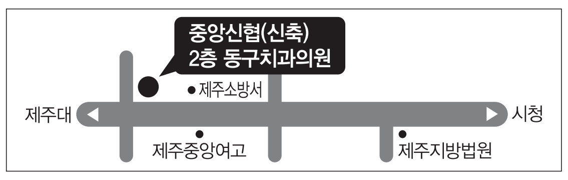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